

일-가족 균형을 위한 관련주체별 노력과 해결방안

정 영 금 (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)

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가정의 육아와 가사노동부담은 여성만의 문제를 넘어 서 가정과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. 게다가 웰빙이나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 역시 일에만 매달리던 가치관에서 삶의 균형과 개인 및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.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사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일-가족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용인들 역시 가족친화적 혹은 여성친화적 기업을 선호하게 되었다.

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여, 본 연구에서는 일-가족 균형을 위한 관련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. 우선, 일-가족 균형의 문제가 대두된 배경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기대치까지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재상태를 진단한다. 또 이를 위해 관련주체들이 어떠한 노력과 발전을 해왔는지를 연구, 기업, 공동체, 가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 이러한 과정들은 미국의 연구결과나 정부 및 기업의 정책에 관한 자료와 관련사례들을 기초로 분석하고, 이를 우리나라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문제를 진단한다.

우선 연구의 측면에서, 미국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차원에서 일-가족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을 조사하여 대책으로서의 정부 및 기업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. 특히 대학부설연구소나 기업 자체의 연구를 통해 일-가족 균형의 필요성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,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다.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의 연구는 초보단계이며 일-가족 균형을 목적으로 한 연구소나 기업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.

기업 측면에서 보면, 미국에서는 복지혜택이나 시간전략에 활용되던 각종 제도나 방안들이 가족친화적 정책이나 일-가족 균형 프로그램이란 명칭과 목적으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정책을 넘어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. 공동체의 노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기업간의 협상전략을 소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기도 하고 혹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.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일-가족 균형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는 육아시설 확충이나 출산휴가에 불과하며 공동체나 사회 일반의 노력이 전무하다.